

'제1회 섬진강영화제' 순창서 열린다

조직위원회 출범·창립총회 열려... 10월 21~23일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아름다운 섬진강을 품고 있는 전북 순창에서 제1회 '섬진강영화제'가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순창군은 21일 군청 영상 회의실에서 섬진강영화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됐으며, 순창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지원자들이 몰렸다. 군은 심사를 통해 섬진강영화제 발전에 참여할 군민, 영화인 등으로 조직위원을 선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개막일정과 순창 향토회관 야외무대, 작은영화관 영화산책 등 행사 장소를 확정했다. 아울러 섬진강영화제를 이끌어 갈 초대 조직위원장으로 영화배우이자 영화감독, 시인인오 활동 중인 백학기 감독을 선출했다.

백학기 조직위원장은 "섬진강 순창 장군목 일대는 이광모 감독의 영화 <아름다운 시절>,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 장규성 감독의 <이장과 군수> 등 한국의 영화감독들이 자주 찾는 영화 촬영 로케이션의 명소"라며 "섬진강영화제를 통해 순창만의 영화문화 콘텐츠를 육성해 군민의 문화수요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영화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순창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노홍균 순창군 문화관광과장은 "민선 8기 최



21일 순창군청 영상 회의실에서 섬진강영화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영일 군수의 공약으로 진행 되는 섬진강영화제를 통해 순창의 새로운 모습이 영화제로 거듭나도록 조직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영화인, 관광객 등이 순창을 찾아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섬진강영화제는 군민 모두가 만나고 만나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써 순창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더불어 영화와 순창의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로케이션 마케팅 효과를 창출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섬진강영화제는 개·폐막식 및 군민위드시네마, 시네마토크, 가족힐링시네마, Shot시네마순창 등 영화상영과 청춘극장, 영화 OST 라이브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 전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 전북도 서예인 기획전 개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전라북도 서예인들과 함께 하는 2022년 기획전시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지난 19일 남원전을 시작으로 10월 24일 고창전으로 마무리 된다. 22일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서예의 본고장인 전라북도의 서예진흥과 발전을 위해 14개 시·군 작가 총 603명이 참여하는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를 기획했다. 각 지역별 작가들이 애환의 마음을 담아낸 이번 전시는 11개 시·군 전시장에서 다양한 전북서예의 향연을 펼친다.

이번 전시를 위해 서예비엔날레는 "전라북도 출향작가를 모집하고, 도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진작가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도민이 함께하는 서예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 전시기간 및 전시장의 접근성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이어 "서예, 전북의 산하를 날다" 전시를 통해 내년에도 개최되는 2023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면서, 올 가을 전라북도 전 지역에 스민나는 서예 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완주 산속아트페어 23~25일 진행

18명 청년작가 100여점 작품 전시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3~25일 3일간 완주 복합문화공간 산속등대에서 참여 기업인 산속등대와 예술가들이 협업한 '산속아트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속아트페어는 뜨거운 미술시장의 열기를 전북으로 가져와 도민들과 예술가를 연결하고, 미술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한 사업이다.

참여 작가는 강유진, 김누리, 김시오, 김종현, 명운아, 문민, 박미, 서수인, 서완호, 양광식, 엄수현, 윤미류, 이일순, 이주원, 이권중, 임민

택, 천은화, 최무용 등 전라북도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아트페어와 다양한 전시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18명 청년작가들로 100여점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작품 가격은 30만 원부터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또한 24~25일에는 산속등대에서 '토일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 토일 페스티벌은 200여 팀의 플라멩코와 아이들의 카툰세일(어린이 플라멩코), 공연 등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산속등대 원태연 대표는 "완주 소양에서 처음 열리는 아트페어인 만큼 많은 도민들과 전북지역의 여행객들에게 뜻깊은 행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완주서 뮤지컬 '오리지널 드로잉 쇼' 펼쳐진다

완주군에서 화려한 미술 공연이 펼쳐진다.

22일 완주군은 오는 20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 '오리지널 드로잉 쇼' 공연을 연다고 밝혔다.

뮤지컬 '오리지널 드로잉 쇼'는 미술과 무대의 만남으로 세계최초의 미술 난버벌 퍼포먼스 공연이다. 그림의 모든 과정이 관객 앞에서 순식간에 그려지며 상상 못할 미술의 특수효과를 통해 온가족에게 감동의 잔상을 선물한다.

묵단, 물감, 붓, 마이클링, 모래, 그림자 등 다양한 기법의 내용을 배우들이 음악과 함께 직접 그림으로 그려내며 쇼로 보여준다.

반고흐의 해바라기, 다비드의 나폴레옹 등 전 세계의 미술 명작과 현대의 문화적 이야기를 라이브, 그림 퍼포먼스를 통해 전한다.

공연 예약은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완주군청 문화관광과(063-290-2597)로 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우즈베크 국립교향악단 초청 갈라 콘서트' 김제서 개최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10월 7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10월 7일 오후 7시 30분 '우즈베크 국립교향악단 초청 갈라 콘서트'가 개최된다.

우즈베키스탄 국립교향악단 65인조와 우즈베크 국립교향악단 전속 오페라 가수인 소프라노 카디 차 이만나자로바, 바리톤 아갈베크 피아조프 그리고 우즈베크 전통 발레 등 영화 음악과 대중적 오페라 명곡으로 이루어진 공연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김제시민 행복을 위한 '천일야하! 동화적인 상상력-아라비안 나이트의 신비로운 이야기 & 오페라 갈라 콘서트'의 주제로 공연은 강민석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의 연출과 우즈베크 국립 교향악단의 지휘자 카롤리나 우린비에프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우즈베키스탄 전통 발레와 음악적 완성도가 있어야 부를 수 있는 '모차르트 밤의 여왕 아리아' 롯시니의 '나는 이 거리 최고의 만능박사', 비제의 '투우사의 노래' 등 클래식 명곡을 감상할 수 있으며, 특별출연으로 우리 소리인



새타령을 우즈베크 국립오케스트라 65인조 서양악단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한 곡을 여성 관소리 그룹 한가락이 협연함으로써 우리 소리의 세계 진출을 도모하고자 한다.

관람권 예매는 9월 27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하며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람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이동형 '거리미술관' 전시회

김제시는 오는 10월 20일까지 벽골제 광장 일원에서 이동형 '거리미술관'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동형 '거리미술관'은 김제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로 김제에 거주하거나 작업실을 둔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지원금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사업에는 11인의 작가가 지원했으며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를 통해 강동규, 한국예총 김제시지회(김동현, 김형기, 김형섭, 배상숙), 홍승구 등 6인의 작가를 선정했다.

이번 전시회는 '조각가 4인전 자연과 공존'으로 한국예총 김제시지회 소속 조각가 4인(김동현, 김형기, 김형섭, 배상숙)이 참여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